

손흥민, 암 투병 팬 사연에 눈물



▲ 쌍둥이 소녀들과 그의 아버지가 손흥민이 선물한 유니폼을 들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토틀넘 풋스퍼 FC

토틀넘 캡틴 손흥민(31)이 암 투병 중인 팬들 만나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21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토틀넘과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은 전날 손흥민이 직접 팬들 편지를 읽는 '팬 메일' 영상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18세 소녀들이 체장암과 10년 동안 싸우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쓴 사연을 읽었다.

쌍둥이 소녀들은 "아버지가 엄청난 토틀넘 팬이다. 지금 10년째 체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 하지만 축구장에 가면 암을 잊을 수 있으셨다. 그래서 토틀넘 홈 경기장에 가고 있다."고 썼다.

손흥민은 사연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북받쳐 임기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투병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두 딸을 초대했는데, 이들은 손흥민을 만나자마자 깜짝 놀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은 그들에게 "편지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다. 훈련장을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토틀넘 팬들은 손흥민의 인품에 "손흥민은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선수가 우리 팀 주장이라 자랑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손흥민은 아버지 팬, 쌍둥이 소녀들과 추억을 쌓은 이후 자신의 유니폼에 "가장 따뜻한 소원을 담아드린다. 힘 내시고 이겨내세요."라고 적어 선물하며 쾌유를 응원했다.

우즈 "내 실력에 대한 의심 사라졌다"



▲ 왼쪽부터 아들 찰리, 딸 샘, 타이거 우즈. 사진=SNS(GolfrnCBS)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8·미국)가 날카로운 샷 감각을 뽐내며 자신의 몸 상태를 둘러싼 주변의 의구심을 완벽히 씻어냈다.

지난 18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우즈와 그의 아들 찰리(14)는 전날 올랜도의 리츠 칼튼 GC(파72)에서 열린 가족 대항 골프대회 PNC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19언더파와 125타를 적어내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이벤트 대회였지만 우즈는 아마추어인 아들 찰리를 데리고 첫날 8언더파를 친 데 이어 둘째날에는 11언더파를 합작하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지난 4월 발목 수술을 받은 우즈는 이달 초 열린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에서 7개월 만에 복귀전을 가졌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장타와 정교한 기술샷을 잇달아 선보였다. 우즈는 스스로도 만족한 듯 "이젠 걸어 다니면서 경기할 수 있는데 대단한 성과"라며 "오랫동안 불을 치지 않아 생긴 의심의 녹을 벗겨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다면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골프공을 치고 칩샷을 하고 퍼트를 할 수 있지만, 이걸 72홀 동안 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다. (앞으로) 체력과 내구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NBA 올랜도, 기아와 홈구장 네이밍 스폰서 계약

미국프로농구(NBA) 올랜도 매직의 홈구장 암웨이 센터의 명칭이 기아 센터로 변경된다.

지난 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올랜도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올랜도 도심의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의 본거지이자 올랜도 매직의 홈구장인 암웨이 센터가 기아 센터로 이름이 바뀐다"며 기아와 새 홈구장 네이밍 스폰서 계약 사실을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NBA 홈구장 네이밍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13년 동안 네이밍 스폰서 계약을 했던 암웨이가 연간 400만 달러 정도를 지불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2005년부터 NBA와 연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NBA의 공식 후원사 중 하나인 기아는 올스타전, 그리고 최우수선수(MVP) 같은 타이틀에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 NBA 올랜도 매직의 홈구장 암웨이 센터의 명칭이 기아 센터로 변경된다. 사진=올랜도 매직 홈페이지

알렉스 마틴스 올랜도 최고경영자는 "우리와 기아 아메리카는 수년간 자랑스러운 파트너였고, 기아의 성공과 성장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기아가 팬들과 NBA의 힘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이고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확장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